문성고, 빛고을 고등학생 토론대회 우승

광주선관위 주최 관내 32개 고등학교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 진행

2학년 김윤현 · 김지호 학생, 장학금 100만원 · 전국대회 참가자격

광주 문성고등학교(교장 이승범)가 6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4회 빛고을 고등학생 토론대회에서 우승하며 대상을 거머쥐었다.

광주 32개 고등학교가 출전해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도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이 필요하다'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를 갖고 8월18일 토요일에 광주시의회에서 치열한 예·본선을 진행했다. 이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문성고와 서석고가 성황리에 결승전을 치렀다.

4회 대회는 태풍 '솔릭'의 영향에 의한 일정연기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준비과정에서 결승 두 팀의 준비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실에 근거한 주장과 통계분석으로 고등학생 수준이상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작년에 이어 결승전에서 또 만난 문성고등학교와 서석고등학교는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치며 결승전에 임했다. 3회 대회에선 서석고가 우승한 바 있다.

4회 대회에서 설욕전을 펼쳐 우승한 문성고 2학년 김윤현, 김지호 학생에겐 대상의 영예와 함께 장학금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9월9일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정선호 지도교사는 "평소 수업 방식 개선의 일환인 질문 있는 교실의 확대와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 참여 중심의 토론 수업의 결과이다"며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과 자기의사 결정권을 실현해 민주 시민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골프선수에서 공무원까지'

쌍둥이 형제의 인생 도전기

함께 운동하다 골프 접고 검정고시 · 대입 · 공무원 합격

고등학교 2학년 때 골프운동을 그만두고 동시에 검정고시와 대학입학에 이어 교육공무원 시험까지 연이어 합격한 정지수(오른쪽 · 형) · 민수(23)씨 일란성 쌍둥이 형제.

함께 운동을 하다 그만두고 동시에 검정고시와 대학입학에 이어 공무원시험까지 연이어 합격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정지수·민수(23)씨 형제. 일란성 쌍둥이인 지수씨 형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에 입문했다.

함께 운동을 하며 골프고에 진학한 형제는 국내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선수로 활동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자 형제는 고등학교 2학년때 과감히 골프클럽을 내려놨다.

학교를 나온 형제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학에 목표를 두고 수능시험을 준비했다.

운동에 전념한 탓에 기초학습량이 부족해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2년여 동안 수능시험을 공부한 끝에 형은 연세대에, 동생은 전남대에 나란히 합격했다.

군대를 다녀 온 형제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했다. 동생 민수씨가 형에게 권유해 광주시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교재를 구입해 9개월 가량 독학한 형제는 지난 5월 치른 시험에서 동시에 합격 소식을 들었다.

동생 민수씨는 지난 1일자로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발령받았고, 형 지수씨는 임용을 유예하고 대학을 졸업하기로 했다. 대신 동생 민수씨는 방송통신대로 편입해 학업을 마칠 예정이다.

형제의 결정을 항상 믿고 묵묵히 지원해 준 부모님도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잖아요. 한 가지 목표만 갖고 이게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 같아요. 항상 인생의 차선책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9일 동생 민수씨는 "인생에서 플랜 A보다 때로는 플랜 B가 더 유용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컴퓨터기초 , ITQ엑셀 자격증 따러가자"

영암군 삼호도서관 정보화교육 인기

영암군은 9월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교육은 지난 2014년부터 시간·거리상 문제로 정보화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문서작성에서 정보처리 과정, 자격증 대비과정 등 다양한 수업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전시간대 상위버전의 OA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디지털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매년 수강생 접수 시 줄을 서서 접수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보화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진행예정이며 컴퓨터기초, ITQ엑셀 2과목을 매주(목요일,금요일) 2시간, 1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보화 교육을 운영 하겠다" 면서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군민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공업고등학교가 최근 학교구성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벽화 꾸미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벽화 속 엄마의 편지

"넌 내 인생 최고의 작품"

광주공고 벽화꾸미기 학부모 참여

엄마들이 자녀에게 전하는 편지가 학교 벽화로 탄생해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았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공업고등학교가 학교구성원, 학부모들의 참여로 벽화 꾸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벽화 주제는 자연과 하나되는 벽화, 금연선도, 복도명화, 캘리그래피,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선후배 등이다.

벽화 제작은 학교 만화창작부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주도했으며 학부모 엄마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학부모들은 평소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문구를 벽화에 새겨 넣었다.

한 엄마는 "아들아! 넌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다. 3.2kg, 52cm 아가가 쑥쑥자라 이젠 엄마보다 20cm가 더 크다"고 적었다.

다른 엄마들은 "너의 웃음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엄마는 아들바라기", "엄마는 너의 존재만으로 행복하단다",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올리는 들꽃,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는 등 자녀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월례회의 '호텔 아닌 공공시설'서

전남도교육청이 매달 초 진행하는 월례회의를 간소화하고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부장, 지역교육장 및 과장 등 1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던 월례회의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으로 구분해 개최한다.

참석인원은 기관장급으로 최소화하고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안 논의에 집중한다.

회의 장소도 장만채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호텔과 대형 연회장 등을 주로 사용했으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다.

10일 개최하는 9월 월례회의는 담양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교육협력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영중 정책기획관이 발제를 한 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한다.

그동안 전남도교육청 월례회의는 전달 중심으로 진행돼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의견을 청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월례회의 때마다 1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호텔 등 외부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토론 중심의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규모를 간소화하고 장소도 공공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광 주 지 국 안 내

계 림 010-3635-7195	백 운 010-2943-8374
중 앙 010-3365-6200	광 산 010-5604-6533
학 운 010-4166-1810	송 하 010-8620-1925
광 천 010-6612-8599	임 동 010-2656-4543
금 호 010-6636-2775	양 산 010-2646-3205
상 무 010-5359-7406	오 치 010-7532-3313
풍 암 010-6634-5084	북 구 010-4601-2080
화 정 010-8438-3819	동 운 018-611-7751
봉 선 010-9474-0212	용 봉 010-4601-2080
진 월 010-2615-8374	두 암 010-2684-6091

◆ 시 외 안 내

강 진 010-4606-0660	영 암 010-5655-2415
담 양 010-3629-9016	완 도 010-9578-5900
무 안 010-5234-2313	장 성 010-5287-7711
보 성 061-853-9125	장 흥 010-6234-6226
순 천 010-2300-9083	진 도 010-3081-5203
광 양 010-5604-6981	함 평 010-3625-3160
여 수 010-6655-8503	화 순 010-2077-6464
영 광 010-3611-3081	곡 성 010-3615-1088